

# 위기에도 이어갈 수 있는 평생교육 방법 고민해야

## 소통 살리고 교육만족도 높일 2021 평생교육 필요

2021년 해운대구 평생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까.

2020년은 초유의 코로나19 재난으로 평생학습도 어려움이 컸다.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위기에 대처하였다. 예년에 비해 양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 재난 앞에서도 평생 교육을 계속 이어온 것은 분명 성과이다. 평생교육 강좌의 특성상 대면 교육 선호도가 높아 비대면 교육을 처음 접한 수강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대면, 비대면 수업의 조화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새해가 밝았고, 지난해 연말부터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열의가 높은 구민의 바람을 잘 반영한 2021년형 평생교육을 기대하게 된다. 해운대구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세 분의 주무관을 만나 지난해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진정되면 미래대학 심화 과정과 학습동아리 지원 관련 강좌를 열 계획이다.

**홍국화** 운동,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배달강좌, 학습동아리 등 주체적 학습활동 확대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배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내년이 되길 바란다.

**송정환**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다.

별밤학교도 더욱 확대하여 일상 속에서 소소한 배움과 만남의 기회를 넓혀 갈 계획이다.

김수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timeless1984@naver.com

■ 지난해 해운대구 평생학습을 돌아보면?

**김시정**(원더풀 미래대학 담당) 코로나19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을 준비해 두었지만, 강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무척 아쉬웠다.

특히 교육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이에 따라 수강생들의 교육환경이 달라져야 해서 대처하는 어려움이 컸다.

**송정환**(별밤학교 담당) 코로나19로 강좌운영 중단이 속출하여 운영자와 담당자, 기대했던 주민 모두 힘든 시간이었다.

계획했던 것들을 실현할 수 없어 많이 아쉬운 한해였다.

**홍국화**(평생학습관 담당) 코로나19로 학습자들의 참여도가 어느 해보다 저조했다.

특히 수강생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평생학습관 수업은 학습자와 강사가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해 소통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인해 그러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 교육 현장에서 크게 느낀 점은?

**김시정**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 교육을 시행했다.

수강생들의 협조로 진행되긴 했지만 보완할 부분도 많다. 비대면 강좌에 참여 방법을 잘 모르는 일부 수강생들은 교육을 포기하기도 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소외되는 수강생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정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준비한 강좌마다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많은 구민들이 신청하여 여전히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홍국화**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강사와 학습자의 표정을 보기 어렵고 교류시간을 갖지 못했으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교류가 이루어진 장점도 있었다. 또한 강좌 수업방식과 학습자의 참여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비대면 매체를 활용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앞으로의 평생교육 방향은?

**김시정** 인생2막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평생학습의 역할이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내 손으로 따뜻한 겨울 연출"

지난해 11월 카페 gdb에서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리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순환하는 영원한 삶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고 전한다. 리스의 동그란 원은 생명의 순환성, 성취, 승리를 의미하며, 행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 문 앞에 걸어 두었다. 크리스마스 리스가 상록수인 것은 힘겨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루만에 멋진 리스를 만든 수강생들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1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하점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point0811@korea.com

# 비대면 시기 성인문해교실 해법 찾아야 할 때

## 과제물 일일이 가정 배달하는 복지관도 있어

성인문해교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한글 읽기·쓰기와 간단한 셈이 가능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다. 해운대구는 9군데의 복지관과 민간기관에서 한글교실을 운영 중이며 수강생의 평균연령은 70대이다. 늦게나마 배움의 기회를 맞아 모국어인 한글을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익혀가는 문해 기초학습자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자 학교교육 현장은 비대면 온라인수업으로 빠르게 대응했다. 하지만 감염병에 취약하고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성인문해 어르신의 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성인문해 담당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주 2회, 초급, 중급, 고급반 수준별 수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이후 거리두기 방식에 맞추어 각 반을 두 반으로 나누어 수용인원을 조정하였고 현재는 홈스쿨 가정학습으로 대체하여 운영 중이라고 한다.

홈스쿨 가정학습은 각 프로그램별 학습자 수준에 맞게 개발한 가정학습지와 성인문해 교재를 사전에 제공하고, 주 1회 이상 전화나 1:1 대면을

통해 학습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방식이다. 복지관에 따라 학생이 복지관으로 과제를 제출하거나 담당자가 수거하고 다시 배포하는 곳도 있다.

홈스쿨 가정학습을 위해 학습꾸러미를 만들어 배포한 복지관도 있다. 학습꾸러미 안에는 두 권의 한글학습용 교재와 반침없는 동화책, 노트, 학용품, 학습계획표, 마스크, 손소독제를 넣었다고 한다. 과제물 수거와 배달은 문해교육 담당자의 몫이다. 주 1회 정해진 요일 오전에 일일이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우편함에 넣어둔 과제물을 가져온다. 수거해 온 과제물을 강사 두 분이 체크를 하며 도움말을 남기기도 하고 전화 통화로 학생을 격려한다. 또 과제물 체크, 체크한 과제물을 학생들의 우편함에 가져다 놓는다. 비대면 학습을 위한 현장의 수고로움이 만만치 않다.

1차 학습꾸러미를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학습계획표를 보며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려워 전화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2차인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고 안정되었어요.” 라고 문해 담당자는

말한다. 그러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대면 학습이 가능할 때 다시 오겠다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성인문해 학생인 어르신이 바라는 것은 역시나 대면수업이다.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되기도 하고 한글을 깨우치는 학교이자 교류의 장소이기도 한 교실이 그리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변수가 많은 만큼 어르신의 비대면 수업방식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 평균 연령이 70세임에도 불구하고, 홈스쿨 수업시 SNS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를 실시한 곳도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에게 1:1로 디지털기구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세대간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양한 문해교육 수업 방식을 시도하여 늦깎이 문해학습자들이 배움의 열정과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시기이다.

정수임 평생학습 구민기자  
maruco15@naver.com

# 데이터로 본 ‘해운대 별밤학교’

## 강좌 만족도 5점 만점에 4.72점

해운대구 대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해운대 별밤학교(별밤학교)’의 이모저모를 데이터로 살펴 보았다.

2020년 별밤학교는 카페 등 20개 상업공간을 활용하여 190개 강좌가 진행되었다. 총 1,020명이 참여하였고, 참가자의 84.3%가 여성, 15.7%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3%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40대, 50대, 20대, 60대 순이었다.(2020년 12월 3일 기준)

별밤학교 이용자는 대부분 해운대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안내 책자, 리플렛, 해운대구 블로그, 해운대신문 등을 보고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인 소개와 입소문으로 참여한 사례도 약 2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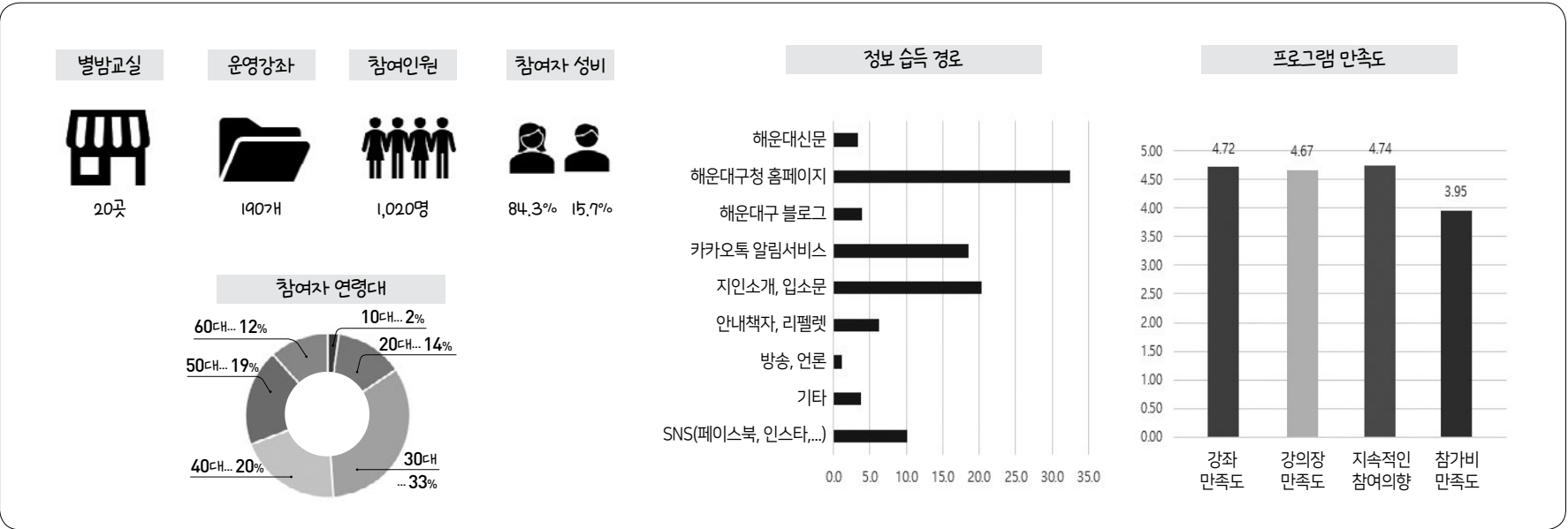
별밤학교 만족도는 강좌 만족도, 강의장 만족도, 지속적인 참여 의향, 참가비 만족도로 분석하였으며, 각 만족도는 5점이 만점이다. 별밤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7점 이상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강좌, 강사의 전문성, 매니저의 친절함, 카페의 분위기와 커피·간식이 좋았다는 의견

이 있었다. 일부 아쉬운 점으로는 강의장이 협소해서 만들기 활동을 할 때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3.95점)가 낮았던 참가비에 대한 의견으로는 67%가 ‘저렴하다’고 응답하였다. 30%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여 97% 이상은 참가비에 대해 적정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폐강된 상황에서 별밤학교를 통해 잠시나마 집 근처 카페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행복했다는 참여자들. 2021년도 별밤학교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소미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mida0219@naver.com





# 글쓰기와 뮤지컬, 뿌듯함을 선사하다

## 여성을 위한 '원더풀 미래대학' 알찬 결실



뮤지컬교실 수료식

지난 해 원더풀 미래대학(미래대학)은 변화가 있었다. 주로 해운대구의 중·장년층인 베이비부머세대와 은퇴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는데 지난 해에는 여성 편을 개척하였다. 미래대학의 좋은 프로그램에 여성도 참여하고 싶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대학은 글쓰기 교실과 뮤지컬 교실로 진행하였다.

글쓰기 교실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서 열렸고, 뮤지컬 교실은 7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렸다. 두 교육을 통해 참가한 여성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삶의 활력을 찾아 나가는 모습이였다. 이번 교육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았다는 정순희 씨

와 장기부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글쓰기 교실의 정순희(우동) 씨는 미래대학 글쓰기 교실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한 획을 긋는 경험을 했다고 하며 환하게 웃었다.

오전에는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라서 단기 특강을 주로 들었는데 이번 미래대학은 오후 시간이라 참여할 수 있었다. 교육 기간도 길어 기대감이 컸다. 매주 한 편씩 글을

쓰고 일주일 내내 수정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강사에게 피드백을 받아 완성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재미있었다.

수강생 13명의 글은 책으로 묶였다. 책 제목은 '언니야, 잘 견뎌!'이며 88편의 글이 담겨 있다. 정순희 씨는 본인 생활 중심의 글 12편을 실었다. 그중에 '나의 인생 해운대' '여유가 좋아', '개혁군주 이산'이란 제목으로 쓴 글이 애착이 간다고 말했다. '나의 인생 해운대'는 자신이 해운대 주민인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문화교양적인 요소들이 좋아서 쓴 글이다. '여유가 좋아'는 중년이 된 지금 여유를 누리고 즐길 수 있어 행복한 현재의 만족함을 표현했고, '개혁군주 이산'은 역사를 좋아하고 특히 정조 임금을 좋아해 쓴 글이다.

정순희 씨는 혼자서는 감히 할 수 없던 책 만들기 미래대학을 통해 이루었다. 이번 글쓰기 교실을 통해 얻은 기쁨과 성취감은 정순희 씨의 삶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였다고 강조하며 뿌듯해했다.

뮤지컬 교실 수강생 장기부(반여동) 씨는 예전부터 연기나 연극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장기부 씨는 노래, 춤, 연기를 제대로 배워 볼 기회가 생겨 뮤지컬 교실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 아쉬워 했다. "댄스와 노래를 직접 보고 들으며 따라 해도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하니 정말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대면 수업으로 진행됐으면 소향시어터 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었는데 영상 촬영으로 마무리돼 아쉬움이 컸다. 지난해 10월 24일 하루를 영상 촬영에 집중해 축제 같은 하루를 즐겼다고 회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뮤지컬 교실 덕분에 가을이 더 풍성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기부 씨는 뮤지컬 교실에서 여러 주제로 시나리오를 써보고 평소 접하지 못했던 뮤지컬 댄스, 뮤지컬 음악을 접해서 좋았다. 무엇보다 연기 수업에서 한 즉흥연기가 인상적이었다. 20여 명의 수강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을 몸동작으로만 표현해 연결하니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했다며 지금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장기부 씨는 직장인에게 주말 수업이 너무 반갑다며 뮤지컬 교실을 만들어준 미래대학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 평생학습을 통해 더 넓게 소통하고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뮤지컬 교실에서 불렀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아무리 산이 높아도)' 노래처럼!

하점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point0811@korea.com

## 코로나시대 나만의 평생학습 즐기는 법

## 평생학습 강사풀을 이용한 '프라이빗 체험' 많아졌으면

2020년 1월 나는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날 공항이 폐쇄되었다. 사람을 만나 떠돌고 웃고 같이 밥 먹으며 일상을 나누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다 보니 점점 나만의 시간이 많아졌다.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 당연시했던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현실 앞에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것들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 일상생활'의 시대에 비대면 시기를 지탱해 줄 뭔가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한몫했다. 덕분에 올해 나는 평생학습기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1월에 여성회관에 신청한 재봉 수업은 몇 번의 휴강 끝에 10월에 겨우 종료되었다. 모집 인원이

줄어 들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재수강한 재봉 수업은 한 달 만에 다시 휴강 되었다. 재봉, 가죽, 규방, 커피, 패브릭그림 등을 문어발식으로 배우다 보니 어느덧 12월이 되었다. 가짓수는 많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대면학습이 가능할 때 기본기와 기초과정만이라도 배워두자는 것이 목표였기에 불만은 없다. 그리고 길어지는 비대면의 겨울에는 빌린 책으로, 때로는 유튜브 동영상을 돌려 보면서 혼자만의 궁리의 시간을 가져 볼 생각이다.

내가 이용하는 공예 밴드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동영상 패키지를 판매하는 개인이 많아졌다. 구매

자도 꽤 많다. 또 인터넷상으로 그림이나 악기를 배우는 취미플랫폼도 많아졌다. 그러나 모두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과 접근성에서 밀리는 교육약자를 위해 평생학습 기관에서 일정부분 이 몫을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생학습에 소속된 강사풀을 이용한 지자체 유튜브를 통한 '프라이빗 체험'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소수 인원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수업은 많은 분이 볼 수 있으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동안 가족 독서 낭독회로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지인. 거리두기로 인해 줄어든 수강인원으로 인터넷 신청에서도 밀려 3년 동안 해오던 취미생활을 접게 되었다는 재봉 동료. 평생학습관에서 홈페이지를 배웠지만 혼자서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친구.

코로나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나만의 평생학습 팀이 있다면 같이 나누어 보아요.

정수임 평생학습 구민기자  
maruco15@naver.com

# ‘해운대를 바꾸는 시간(해바시)’ 강연회

## 해운대구 유튜브 채널 ‘해운대야 놀자’에서 다시보기



해운대구는 지난해 11월 4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해운대를 바꾸는 시간(해바시)’ 강연회를 개최했다. 해바시는 해운대구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구민이 직접 뽑은 강사가 참여하는 특

별 강연회로 지역에서 능력 있는 강사를 발굴해 강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해운대구는 구민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이야기, 지식, 지혜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해바시 강연 지원자를 모집했다. 총 30명의 지원자 중 전문가심사를 통해 예선을 통과한 8명의 구민강사가 지난 7월에 열린 해바시 경연대회에 참가해 강연을 펼쳤다. 현장에서 구민 청중평가단 40명과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4명의 수상자를 선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평생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습관’(김종삼, 최우수상), ‘음악과 함께 듣는 자연 생태 환경 이야기’(이승훈, 우수상), ‘내 인생의 지휘자

는 남이 아닌 바로 나’(김도연, 장려상), ‘아무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표현력을 올려주는 동화구연 기술’(김창주, 장려상)라는 주제로 수상자들의 강연이 펼쳐졌다.

남기자(우동) 씨는 “강연을 듣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다.”라며 생활에 필요한 삶의 경험과 지식, 대화의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해바시 경연대회와 강연회에 모두 참석했다는 고은화(좌동) 씨는 “내가 높은 점수를 준 강사가 수상하는 걸 보니 내 일처럼 기쁘고 뿌듯하다.”라며 다음에는 강연자로 지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행사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홍순현 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 구민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구민 참여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바시 강연회 영상은 해운대구 공식 유튜브 채널 ‘해운대야 놀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전희경 평생학습 구민기자  
hkhk79@hotmail.com

## 해바시 경연대회 수상자를 만나다

### ■ 최우수상

**김종삼**  
평생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습관



“언제나 그렇듯이 상 받는 건 기쁜 일이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습관이라는 주제가 사람

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었다는 생각에 기뻐고 연초에 세우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내가 만든 습관만들기 비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비법은 작은 행동을 목표로 정하고 그 행동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읽은 페이지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던 나의 작은 행동이 어느새 3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좋은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지속해야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행동 하나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성취감과 자신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3주 습관카드 사용으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어느새 습관 만들기가 습관이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 ■ 우수상

**이승훈**  
음악과 함께 듣는  
자연·생태·환경 이야기



강연자의 설명과 함께 듣는 음악 감상회 형식의 색다른 강연이다. 지구가 황폐화된 2067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볼 수 있는 지구 환경 문제를 영화 OST를 들으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재배할 작물은 옥수수 밖에 남아있

지 않고 미래 폭풍이 몰려오는 영화 속 장면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오늘날 자연생태계와 환경 파괴 문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자연생태환경 이야기를 음악을 곁들여 설명하면서 음악이 갖는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려 했다.

### ■ 장려상

**김도연**  
내 인생의 지휘자는  
남이 아닌 바로 나



“진짜 내 인생은 서른부터 시작되었다.”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수동적으로 살아오던 나에

게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코이카 해외봉사단에 지원해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했다. 귀국 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고 영화의 전당에서 평소 좋아하던 영화 공부를 시작했다. 2012년 영화비평교실을 수료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단 활동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올해 지역문화에

술 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화계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책을 쓰고 있다. 또한 공사판에서 살아오신 아버지의 삶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엮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재능이다.” 자기주도적인 삶이란 좋아하는 것을 배우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시작해보길 바란다.

### ■ 장려상

**김창주**  
아무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표현력을 올려주는 동화구연 기술



해바시 경연대회 전단지 보고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내가 자신있는 분야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접수 마감일에 동화구연하러 갔던 어린이집에서 동영상 찍고 부랴부랴 접수하게 됐다. 연극을 전공하고 동화구연을 하면서 “남자가 무슨 동화구연을 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남자도 동화구연을 하네.”라는 반응으로 바뀌어 좋다. 동화적인 표현

방법을 곁들이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더 풍성하고 생기 있게 만들 수 있다. 동화구연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호감을 이끌어내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희경 평생학습 구민기자  
hkhk79@hotmail.com



# 봉제 기술 배우고 창업도 꿈꿀 수 있어요

## 해운대기술교육원 창업 통합형 봉제 교육

해운대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은 해운대 구민 중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봉제 교육을 열었다. 기술교육원 1층 ‘오픈 메이커스’ 카페의 무소음 재봉틀을 이용해 봉제기술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 봉제기술이 있는 사람은 오픈 메이커스를 이용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재봉 부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다.

기술교육원은 봉제 기본 과정 수강 후 창업을 희망하는 수강생에게 심화 과정과 제품디자인, 홍보,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누구나 가게’ 교육 과정은 수료 후에 판매 활동도 지원해주는 창업 통합형 교육 과정으로 봉제기술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 교육이다. 교

육 후 창업하면 제품 생산 공간과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공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해운대기술교육원 홈페이지(www.hte.or.kr) 사업안내 ‘여성특화형 봉제 교육과정’에서 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기술교육원에서는 민화 그리기 원데이 클래스도 열린다. 매주 화·수·목요일 열리는 민화 그리기 강좌는 다양한 시간대에 열리는 만큼 전화 문의 후 개인에게 맞는 시간을 신청하면 된다. 민화 그리기 강좌는 좋은 기운을 담은 모란을 민화 기



법으로 그리며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준비된 도안으로 전사 작업부터 채색까지 진행하면서 민화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동양화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강좌당 2명 정원으로 진행되는 개인별 맞춤 교육이다. 완성된 작품은 집에 걸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나무패널에 붙여 가져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정해진 강좌 시간 외 수강을 희망하면 해운대 기술교육원(745-3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timeless1984@naver.com



## 기자수첩 | 2020년을 뒤돌아보며

신문을 만들 때마다 늘 처음인 것처럼 새롭다. 그 새로움은 긴장감이기도 하고 기대감이기도 하다.

취재 때 가끔 마주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느 날 <늘배움신문>을 들고 있는 누군가를 보는 순간 그 어려움은 뿌듯함과 즐거움으로 바뀐다. 이 즐거움이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

김수연 평생학습 구민기자

2020년 평생교육을 한마디로 하라면 ‘별밤학교’라고 대답하겠다. 한 번도 찾아간 적 없는 우리 동네 카페에서 처음 보는 낯선 이들과 만나 웃으며 인사나누며, 함께 무엇을 만들 수 있던 시간이 참 좋았다. ‘배움’이란 낯선 이들도, 낯선 공간도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소미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 1월에 거창하게 세웠던 많은 목표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낸 것이 없다.

생각해보면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나에게 충실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2021년에는 힘겨웠던 코로나와 작별하고 싶다. 그리고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전희경 평생학습 구민기자

참 바빠 살았다. 쉬지도 않고 돌아가는 세상 살아가 힘이 부치기도 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소중한 시간과 귀한 인연들이 고맙다. 2021년에는 마스크 벗고 활짝 웃으며 만나고 싶다.

정수임 평생학습 구민기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평생학습이 중단되고, 신문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 조마조마하며 보냈던 시간 속에서도 2020년의 기록이 담긴 신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에 안도감이 든다. 숨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 지던 때 만나게 된 강좌들이 반가웠다. 타이밍이 좋게 취재를 성공하고 올해의 마지막 취재로 내년을 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정혜경 평생학습 구민기자

취재 할 때 수강생 인터뷰를 하거나 수업하는 모습 사진을 찍는다. 대부분 잘 응해주지만 가끔 본인 이름이나 사진 신는 건 싫다며 거절 할 경우 난감 할 때가 많다. 신문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아직도 인터뷰는 어렵다.

하점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 우리 동네 평생학습 강좌안내

인문학도서관		해운대구 반여로 132 ☎ 051-749-6581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동화 속 미술공작소	2021.1.5.~1.29.	매주 금요일 16:00~18:00	7세유아 20명	무료 (재료비 개인부담)
창의쑥쑥! 독서와 글쓰기마당	2021.1.5.~1.29.	매주 수요일 16:00~18:00	초등1~2학년 20명	무료
유물과 유적으로 배우는 한국사	2021.1.5.~1.29.	매주 목요일 16:00~18:00	초등3~4학년 20명	무료 (교재비 개인부담)
경제야 놀자! 어린이 경제교실	2021.1.5.~1.19.	매주 화요일 10:00~12:00	초등4~6학년 20명	무료 (교재비 개인부담)
유아 영어스토리텔링	2021.1. ~ 3.	매주 목요일 16:00~17:00	6~7세 10명	무료
유아 그림책 읽기	2021.1. ~3.	매주 수요일 16:00~17:00	6~7세 10명	무료
겨울방학독서교실	2021. 1.13(수)~15(금)	09:30~12:30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20명	무료
토요스쿨	2021.1.~3.	매월2주 토요일 13:00~17:00	초등1~4학년 동반가족 20팀	무료 (재료비 개인부담)

재송어린이도서관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 35-1 ☎ 051-749-7631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동시 음악 동화가 만난 EQ세상	2021.1.2.~1.29.	매주 수요일 15:30~17:30	6~7세 유아 15명	무료
FUN FUN 에디슨 과학교실	2021.1.2.~1.29.	매주 목요일 15:30~17:30	초등1~2학년 15명	무료 (재료비 개인부담)
건국신화로 만나는 한국사	2021.1.2.~1.29.	매주 금요일 15:30~17:30	초등3~4학년 15명	무료 (교재비 개인부담)
3D 프린트 창의교실	2021.1.2.~1.29.	매주 토요일 10:00~12:00	초등4~6학년 15명	무료 (재료비 개인부담)
유아이야기극장	2021.1.~3.	매주 금요일 16:00~17:00	5~7세 유아 선착순 20명	무료
영어그림책 이야기극장	2021.1.~3.	매주 화요일 16:00~17:00	5~7세 유아 선착순 20명	무료
겨울방학독서교실	2021. 1.13(수)~15(금)	09:30~12:30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20명	무료
토요스쿨	2021.1.~3.	매월2주 토요일 13:00~17:00	초등1~4학년 동반가족 20팀	무료 (재료비 개인부담)

인기 강좌

## 바쁜 사람들의 삶의 질서를 돕는 ‘정리수납’

코로나19 시기 더 인기 있는 강좌가 있다. 해운대구평생학습관에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정리수납전문가(2급) 과정이다. 실생활에 직접 쓰임이 있는 강좌라서 수강생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몇 달을 기다려서 신청한 수강생도 많다.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은 이론과 더불어 간단한 실습도 병행한다. 정리수납을 하기 위한 장소나 물건의 관리 방법도 이론을 통해 기초를 배울 수 있다. 주위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특별히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정리정돈이 가능하다. 버려질 것들이 정리정돈의 도구로 재활용되기도 한다. 수납의 도구로 새롭게 탄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쓰지 않는 것들, 오래된 것들, 자주 쓰는 것들 순서로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

해 나를 알아가기도 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수강생 강향운(반여동) 씨는 “퇴직 후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강좌에서 도움을 얻고 싶어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대기자가 많아서 계속 탈락하다가 세 번만에 등록이 된 거예요. 집에 있는 옷가지가 많이 줄었어요”라며 수업을 하면서 달라진 점을 얘기했다. 또, 수강생 오상숙(송정동) 씨는 “그날 배운 것은 집에 가서 바로 적용해요. 정리 전후 사진을 촬영해서 밴드에 올리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 주는 게 좋아요”라며 강사와의 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진 강사는 “이 강좌는 실생활에 바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배우고 싶어 해요.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시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집안의 인테리어나 변화를 주고 싶

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수납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현장실습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과제를 통해 수강생 각자의 현장 사진으로 대신 합니다. 본인의 집을 정리정돈 하면서 수강생들이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정리수납전문가 강좌는 출석율 80%와 주방, 옷장, 냉장고의 정리수납 전후 사진을 제출하는 과제를 완수하면 희망하는 분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2021년도에도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나 해운대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한다고 하니 평소 정리수납에 관심이 있으면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문의)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749-5635

정혜경 평생학습 구민기자  
daehanart@naver.com

눈에 뜨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찾아서

## 동화구연으로 봉사하는 ‘동화야 놀자’

### 동영상 제작으로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도



유튜브 제작을 위해 동화와 관련된 소품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



동영상 촬영을 위해 연습하는 모습



유튜브로 촬영하기 위해 매체로 연습하는 모습



동화구연 봉사활동 모습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동화야 놀자’ 동아리 모임이 열린다. 동화야 놀자는 동화구연으로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아리다. 회원들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동화구연지도사과정에서 만나 2019년에 1기 모임을 만들었다. 이후

회원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2020년 2기의 강좌까지 열게 되었고, 수업을 통해서 모임에 참여한 회원과 함께 현재 11명이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부터 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수업이었고, 동아리 모임 또한 한 달에 최소 한 번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모임에는 강사와 함께 동화의 개념과 역사 등 기본지식과 이론을 배우고, 목소리 연기와 표정 연기를 실습한다. 또, 동화구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스터디도 진행된다. 강사님과 수업이 끝나면 12시부터 회원들만 남아 동화 구연 봉사를 하기 위해 책을 선정하고 역할을 정해 연습을 한다.

보통 유치원생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나눔을 했지만 코로나19로 대면이 불가능한 요즘은 영상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다 보니 책 선정부터, 촬영하기 위한 소품과 제작까지 투여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회원 모두 모임 날만 기다릴 정도로 동아리에 대한 애정이 크다. 류명덕(재송동) 회원은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었는데 동화책을 선정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동화를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져요. 갱년기도 극복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모임이에요”라며 동아리를 자랑했다. 황경옥(좌동) 회원은 “손녀한테 그날 연습한 것을 바로 들려주고 평가를 받아요. 손녀한테 동화를 들려주고 싶어 이날만 기다려져요”라고 말했다. 김현숙(재송동) 회장도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니까 성취감도 크다고 하며 앞으로 더 다양한 곳에서 동화구연 봉사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직 많은 것이 서툴러 촬영을 하면서도 실수가 잦다. 여러 번 똑같은 연기를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힘든 여정이다. 그러나 완성된 결과물을 볼 사람들을 생각하면 뿌듯하다는 회원들로부터 봉사의 즐거움이 전해졌다. 동화구연 봉사에 관심이 있다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문을 두드려 보자.

문의)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782-5005

정혜경 평생학습 구민기자  
daehanart@naver.com